
2021년 제4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1. 22. ~ 1. 28.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1. 22.	시청률	0.014

【총 평】

2021년 새해에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집값은 안정될 수 있는지,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 공급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단의 공급대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을 공공주택 확대·세제 강화,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으로 세분화해 정부의 올해 신규 주택공급 방안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을 알려주었다. 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대책,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대책방안을 상세히 다루었다.

‘알뜰신잡’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다뤄 저체온증과 동상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을 상세히 안내해 주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친화적 명절분위기 조성과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책을 세밀하게 다뤄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2021년 핫이슈인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공공주택 확대·세제 강화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다뤄 정부의 올해 신규 주택공급 방안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을 알려주었다.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 공급 대책 마련’에 대해 짚어주며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상해 보았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지역별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6개 지역에 대해 지구지정은 완료되었고 지구계획은 올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하남 및 인천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한 상태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70여 곳이 신청했고 8개 후보지가 발효된 상황이다.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3월 중 추가 후보지 선정이 이뤄지고 발표된다.

주택세제정책과 관련해 취득세의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4주택 이상이 종과의 기준이었는데 개정 후부터는 2주택부터 종과가 이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최대 2배까지 올라간다. 이에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다주택자 종과세율이 증가되며 단기양도 및 분양권에 대한 종과세율 역시 올라간다.

이 밖에 모든 소득계층 대상의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소득 조건과 공급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공공정비사업은 탄력이 붙을 것이고, 행정처리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뜰신잡’은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소개했는데,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복, 가디건, 조끼 등을 적절히 착용해야 한다. 일상에서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실내환경 또한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1. 22.	시청률	0.008

【총 평】

국민리포트의 창의적인 소재들이 많이 다루어져 매우 흥미로웠는데, 탈플라스틱 운동과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행, 산천어, 식탁으로 온다, 서울 우수한옥 인증제 등 볼거리가 많아 몰입할 수 있었다.

특히,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교통부 등 6개 부처의 정책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정책인터뷰는 관공서 공휴일과 중소기업 유급 휴일 확대 정책에 관해 소개했는데 취지에 서부터 유형, 인건비 부담 지원과 기대효과까지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 '청량리~안동 KTX 개통'...일일 관광권 시대 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한 청량리-안동을 잇는 열차, 중부 내륙지역 'KTX-이음'을 소개하였다. 전기동력분산식 기술을 사용한 'KTX-이음'의 최신 장비들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정차역의 기대효과까지 함께 다루었다.
- 플라스틱 운동 '고고 챌린지' 참여 확산
환경부가 이달부터 추진한 '고고 챌린지'운동을 소개하면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정책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로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 주문에서 플라스틱 수저와 젓가락을 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온라인 영사서비스 확대...콜센터도 무료 앱으로 연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영사 서비스 확대 현황을 소개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져 공관을 찾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고, 온라인 발급 문서는 31종으로 늘어났다.
- 광주 사고 불구...횡단보도 '일시정지' 외면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지키고 있는 운전자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거리로 나가 취재하고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예상대로 전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이 그대로 포착이 되었고 제도적인 허술함도 드러나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 화천 산천어축제 취소...산천어, 식탁으로 온다!
지역 축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힘든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산천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신메뉴를 개발해 소개했다. 특히,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좋았고 실제로 개발한 산천어 메뉴도 다양하고 흥미로웠다.
- 서울 우수한옥 인증...전통 건축 가치·우수성 지킨다
서울의 한옥인증제 시스템에 관해 소개하고 여러 채의 한옥도 함께 소개했는데 전통한옥부터 퓨전한옥까지 그 모양이 아름답고도 신기해서 눈길을 사로잡았고 한옥 계승에 대한 메시지도 잘 담겨 있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1. 22.	시청률	0.047

【총 평】

KTV 대한뉴스는 코로나19 관련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 등을 집중 보도했다. 가상대담과 클릭K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발생 1년 '위기를 기회로' 등을 방송해 코로나19 발생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점검해보았다. 코로나19 관련 신규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과 백신 유통사 선정, 발달 장애인에 대한 가족돌봄 활동지원비 제공 등으로 뉴스의 관심도를 높였다.

특히, 뉴스 편집이 중요도에 따라 짜임새 있게 이뤄져 전체적인 흐름이 좋았고, 문어체 대신 구어체로 기사를 작성해 전달력이 살아나는 변화가 있었다.

【구성 및 내용】

■ 신규 확진 346명...“주말 약속·모임 자제해야”

신규확진자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시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차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약속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유통사 선정

코로나19 백신의 유통과 관리를 전담할 기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선정했다. 백신별 맞춤형 냉장유통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엠투클라우드가 협력업체로 참가한다.

■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에도 활동지원 급여 지급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가족 돌봄에도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존슨 총리, G7 정상회의 초청 친서...곧 답신 예정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G7 정상회의 성과에 기여하겠다는 답신을 보낼 예정이다

■ 항균 99.9%? 살균 99%?...손세정제 오인 광고 만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를 조사한 결과 손세정제의 경우 전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가상 대담] 신년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에게 듣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부동산 공급 특단 계획,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에 대한 입장, 아동 학대 대처 방안 등을 정리해주었다.

■ [클릭K]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 1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을 짚어보았다. K-방역의 성과와 더불어 마스크 품귀 현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전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바람도 덧붙여 공감을 자아냈다.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1. 23.	시청률	0.023

【총 평】

‘기록 문화유산의 흔적-전주’는 조선 건국 왕의 본관이자 전주 이씨의 흔적, 후백제의 견훤이 마지막으로 세운 수도,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굳건히 살아남은 전주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기록문화 유산의 본거지 전주에 대한 역사적 재발견과 우리 전통 문화 예술에 대한 아낌과 보존을 위한 재인식에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선조들의 전통과 개혁 의지,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한 서민들의 모습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청자들에게 힘을 주는 방송이었다. 전주에 묻어있는 다양한 문화가 주는 의미, 조선 왕조가 전라도의 정치와 문학에 미친 영향 등 전주에 뿌리박힌 과거 역사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줌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전주는 후백제의 견훤이 세운 마지막 수도이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관이다.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도심으로 대거 유입된 일본인들에게 반발해 조성된 한옥촌으로 우리나라 근대 주거문화 발달과정을 담은 공간이기도 하다.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된 곳, 전주에는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임금의 족적이 소상히 기록된 문서가 이곳에 있다. '전주사고'는 바로 조선왕조실록이 육중하게 보관돼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의 전주는 정치의 중심으로 문화가 융성했던 곳이다.

전주의 기록문화유산인 경기전을 시작으로 어진 박물관, 전주 사고, 오목대, 전라감영 선화당 등을 둘러보고 조선 실록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인 오목대는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승전을 자축하며 연회를 열었던 곳이다. 이 밖에 박물관 내부에 전시된 여러 가지 탁본이나 실록들을 소개하는 장면도 꽤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사고를 보관하고 이동하면서 선조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고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강조되어 의미 있었다.

특히, 품질 좋기로 유명한 전주 한지 제작 과정을 소개했는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전주 한지는 임실 등지의 질 좋은 닥나무와 전주의 좋은물로 만들어졌다.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장소인 한벽당에서 선보인 태평무 공연은 프로그램의 백미였다. 왕과 왕비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 한벽당에서 국악의 배경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한바탕 벌어진 모습이 아름다운 영상으로 화면을 장식했다. 태평무는 왕과 왕비를 기원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 추는 춤이다.

전주 문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완판본 문화관과 '혼불'의 저자인 최명희 작가의 문학관을 살펴보았다. 이 밖에 남천교, 전주향교, 명륜당, 장현식 고택, 전주동헌, 학인당 등 기타 전주의 명소와 전주비빔밥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다. 조선의 3대음식 중 하나인 전주비빔밥은 궁중에서 먹기 시작했다가 서민음식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 23.	시청률	0.068

【총 평】

단박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역사가 담긴 북한의 특산물?’을 소개했고, ‘나 우북’은 발 빠르게 전하는 금주의 북한 핫이슈’를 소개했다. 최근 북한의 8차 당대회를 다루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따라하기 배경과 속내를 살펴보고 북한의 당면 과제를 짚어 보았다. 특히,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종절모, 헤어스타일까지 따라하는 배경과 속사정, 서자로서의 콤플렉스 등을 언급해 몰입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직함이 총비서가 된 배경을 알아보고 2021년 북미, 남북관계 기상도를 예상해 보았다. 코로나19로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경제 살리는 특산물’을 통해 북한의 실제 상황을 알려주었다.

【구성 및 내용】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4일 노동당 열병식에서 김일성 주석이 즐겨 쓰던 러시아식 모자를 쓰고 나와 화제가 되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과의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헤어스타일, 옷차림 또한 김일성 주석과 유사하게 따라한바 있다. 굳이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를 따라한 것은 김일성 주석이 주민들에게 살갑게 대한 것을 활용하여 따뜻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김일성 주석이 통치할 당시의 상대적으로 좋았던 기억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패션 정치는 다수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로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의 이미지를 복제하기 위해 모자와 안경 등 외모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총비서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었다. 이는 노동당 비서국을 이끄는 최고결정권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은 미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며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단박톡은 식량난 및 경제난 해소를 위해 생산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의 특산물을 소개해 주었다. 백두산 들쭉술은 진달래과 열매로서 백두산 지역에만 자라나는 들쭉으로 술, 음료 등 식품 등을 만든다. 특히 북한의 경삿날에 들쭉술을 꼭 마신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 건배주로 활용되기도 했다. 대홍단 감자는 북한 최대 감자 생산지인 대홍단의 감자로 정말 다양한 감자요리를 만든다. 언감자떡은 한꺼번에 감자를 배급함에 따라 보관에 따른 특성으로 생겨난 음식이다. 또, 회령 백살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꽃이 핀 후 100일 만에 먹는다고 하여 백살구라고 불린다. 7월 말, 8월 초에 수확이 이뤄진다. 특히 백살구는 씨앗까지 먹는데 아몬드 맛이 난다고 한다.

프로그램	인터뷰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방송일자	2020. 1. 23.	시청률	0.009

【총 평】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은 시청자들의 마음과 열정을 세상과 연결해준 스타 강사 김미경이 전하는 ‘멈춘 나를 다시 일으키다’를 방송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변해야 하는지, 코로나19 이후에 확실하게 바뀔 문화는 어떤 것인지 등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마음자세의 변화와 준비방법을 실용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온택트(On-tact) 시대를 읽는 센스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지털기반 트랜스포메이션에 합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온택트 시대를 향해가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하고 변화를 즐겨야 하는 시점에서 긍정적 리더십으로 변화해야 함을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구성 및 내용】

스타 강사 김미경은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을 때 좌절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고 늘 소개해 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위기를 공부로서 몰입하면서 지혜를 얻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최근에는 유튜브 및 온택트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합류하여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성공적인 모습으로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추격자가 되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추격해야 한다. 추격보다 용기있는 출발은 없다”며,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추격자로서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격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스스로를 일으킨 한 마디는 “부러진 나무는 반드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라며 실패에 주목하지 말고 실패를 딛고 일어난 그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고 회복하라는 이 한 마디는 평범한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리부트 전환의 힘’이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였어도 나무가 부러졌을 때 부러진 방향을 가리키는 것에 순응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또 길이로 진리이고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살아내면 살아지는 것이고 삶은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였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해야하는지를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매우 쉽고 속도감 있게 소개했다.

위기 때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공부로써 리부트 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50대 이후들은 어떻게 변화에 피벗(pivot)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와 기업들의 발 빠른 디지털 전환, 남과 비교해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늦은 게 아니고 바로 그 시작점이다 등 현실적인 문제를 실체적으로 해결하며 즐기는 강연자의 노하우를 소개한 생명력 넘치는 온택트(On-tact)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 24.	시청률	0.082

【총 평】

“나비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산으로 왔습니다.”는 나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전남 함평군 대동면 산골에서 차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의 귀농 이야기를 담았다. 차 농사를 통해 느낀 자연의 씩씩한 맛과 느낌의 향기를 잘 보여주었고, 차밭 농법을 고집하는 모습이라든가 대나무 통을 개발하여 차 맛 향기를 한껏 끌어올린 집념 등 주인공의 농사 가치관이 뚜렷하게 잘 드러났다. 주인공 부부의 삶에 대한 담담한 태도는 의, 식, 주, 건강 네 가지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잘 드러났다. 특히, “술과 달리 ‘차’의 장점은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주인공의 말은 곧, ‘차는 소통의 좋은 매개체’라는 사실이었고, 깊은 차 맛의 진가를 시청자들에게 전한 방송이었다.

【구성 및 내용】

차농사를 위해 귀농해 22년째 차를 만들고 있는 주인공은 대통차라는 독특한 차를 만드는데, 그의 차만큼이나 그의 인생도 특이해 출가했다가 환속하고 차 뿐 만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의 인생은 행복해 보였다.

죽통차를 제조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주인공은 죽통차 제조 과정을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예술적 창작활동과 같이 즐기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정성으로 제조된 차잎이 소비자에게 자신의 마음까지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생산자로서의 소신과 철학이 감동으로 전해져왔다.

주인공의 대통차를 만드는 방법은 차밭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연의 상태에서 차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했으며, 대나무는 유기농을 인정받을 만큼 정성을 들였다. 누구와도 다른 차를 위해 차 이름을 직접 쓰고 차에 대나무 향을 입히기 위해 애썼다.

죽통차 제조과정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눈길을 끌었고 주인공의 차에 대한 장인정신이 그대로 느껴져서 좋았다. 대나무를 구워 껍질을 벗기는 장면까지 다루어졌는데 모든 과정에 정성이 가득 담긴 것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차에 대한 장인정신과 자유로움이 프로그램 전반에 조화를 잘 이루어서 종료 이후에도 마치 주인공이 마시던 죽통차의 맛과 향기 같은 깊은 여운을 남겼다. 또한, 주인공만의 인생철학은 물론 부부애, 장인정신, 황혼의 자유로움, 인생의 멋 같은 것이 모두 다루어져서 감정이입이 되었다.

또한, 그는 집을 배워서 짓고 있으며, 그의 보금자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눈오는 날 아내와 즐기는 설매타기는 전원생활이 주는 덤 같은 것이다.

“고통 없이 차 한 잔 입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주인공은 “내가 만들 때 마음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진솔한 감동을 주었다. 자연이 준 차와 대나무를 활용하여 죽통차를 개발한 주인공의 귀농 전략이 후세대 귀농인에게 도전과 집요함, 그리고 전문성의 중요함을 보여주었다.